

충남도의회, 충남발전연구과 의정발전 세미나 개최

- 22일, 행자위 등 4개 상임위의 기능 강화와 의정 방향 모색



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함께 10월 22일(목) 오전9시부터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의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의정연찬회에 충남발전연구원을 초청, 각 상임위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제주올레 서명숙 대표를 초청하여 제주올레길의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 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총발연 연구진과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행자위에서는 공주영상대학 양광호 교수의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충남관광 활성화”로, 교사위는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의 “충남 저소득층복지의 실태와 발전방향”으로, 농경위는 (주)말뚝이 TnC 김수남 대표의 “농업 및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건소위는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의 “금강살리기사업과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은 “우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연구기관,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도정 발전을 위해 쓸모있게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 2009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총발연 이사진과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직제규정 개정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총 예산은 69억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2,200만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절감하는 대신 민선5기 연구수요 증가에 대비한 연구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직 정원 3명을 증원하여 급변하는 도정현안분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부족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충남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한해였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뉴딜정책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연계한 실효성있는 발전계획을 수행함은 물론, 세종시 문제, 도청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구축, 수도권규제 완화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 금강 포구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금강권역의 공동 발전과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로 '금강권역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금강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특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금강발전연구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금강의 뱃길을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대별 강모습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포구문화(浦口文化)'라는 관점에서 백제 고도 등의 소도읍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포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대전일보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12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차 금강살리기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정부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과 연계해 금강권역의 파급효과 제고 및 금강 뱃길의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신수용 대전일보사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박성효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유한식 연기군수, 이장우 동구청장 등 각계인사와 시·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와 토론에선 현 단계 금강살리기 사업의 쟁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

김태명 한남대 교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에서 금강권역발전협의회 구성과 금강발전연구원 설립 방안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금강권역 공동 발전과 금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시·군 협의기구와 연구원 설립이 요구된다"며 "금강권역을 전체로 묶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금강권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맞춤형 테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민 충남역사박물관장은 '금강의 뱃길과 역사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구는 과거 정치경제적 거점이고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된 중요지역으로서 금강 뱃길 역사자원 개발은 '포구문화(浦口文化)'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백제 고도와 기호 유

교문화 자원, 곰사당과 용당진사 등 국가의례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근 대전일보사 60년사 편찬위원,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양광호 공주영상대 교수, 정환영 공주대 교수,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개선 방안을 집중 제기했다.

신수용 사장은 개회사에서 “충청인에게는 ‘금강’이라는 가슴 설레는 단어가 있고 금강은 충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도도한 불길”이라며 “찬반 논란이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충청정신과 충청의 역사분화가 투영되는, 바람직한 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권도엽 차관은 축사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신수용 사장님과 대전일보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09-12-05 1면]

충청 혼 담긴 명품 新도시로

- 대전일보·충남발전협·홍성·예산군 주최 '도청신도시 조성 심포지엄'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홍성과 예산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구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선 신도시와 구도심을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신성장거점 연계형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신도시와 도청소재지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12월 16일 홍성 홍주문화회관과 예산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도와 홍성·예산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도청 신도시 조성 심포지엄'에선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동화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대전일보사와 충남발전협의회,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에는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 최승우 예산군수, 고남종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이은태·김기영·오배근 충남도의원, 이규용 홍성군의회 의장과 신영균 예산군의회 부의장 등 홍성·예산군의회 의원,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 홍성 및 예산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도청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해외 신도시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예산문예회관에서는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및 추진 전략'과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

회로 각계 전문가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오용준 책임연구원과 분지영 연구원은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신-구 도시의 공동협력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신도시는 행정, 연구개발 등 도시 성장 및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 구도심은 서민경제 및 문화·역사, 위락·관광 부문을 육성하는 등 신-구 도시의 기능적 재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헌주 카이스트 건축·환경공학과 교수는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생태 계적 환경에너지 도시,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무계단 저층고밀도시, 여성 편의 위주의 도시 공간구조 등을 제안했다.

김영환 청주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첨단산업 및 해외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자족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도시와 도청소재지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수용 사장은 개회사에서 “도청 신도시가 금강과 백제 등 충청의 역사·문화는 물론 충청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청정신이 투영되고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창간 60주년을 맞는 대전일보사는 충청정신을 계승해 지역 권익 향상과 충청인의 이익 확대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이인화 충남지사를 대신해 환영사에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님 등 각 기관,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청 신도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공적인 녹색 명품도시의 비전이 제시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최승우 예산군수는 “구도심권 쇠퇴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혜가 모아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2009-12-17]